



백승종 '금서, 시대를 읽다' <산처럼> 판

호기심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비롯된다. 말리는 것일수록 더 해보고 싶은 법이니,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란 제목의 소설도 그래서 나왔을까.

금서(禁書)는 출판이나 독서를 법으로 금지한 책이다. 정통성에 자신 없는 지배자가, 권력에 반하는 생각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행하는 무리수다. 믿을 없는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므로, 금서는 사회 성숙도와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금서의 역사는 깊다. 서양의 '일리아드'나 '오딧세이'는 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금서가 됐다. '보바리 부인'은 불륜을 저지른 후 더 이롭다워졌다는 표현 때문에, '쫘는 베르테르의 슬픔'은 자살을 옹호하고 미화했다는 이유로 금서라는 명예를 썼다. '유로



했는데, 강연 내용을 옮겨놓은 것 같은 이야기체 서술로, 편하게 읽힌다.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적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정감록'의 경우, 체제 전복이나 폭력투쟁에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의 소망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정은 무서웠을 것이다. 지배자의 두려움은 금서를 낳는다. '태백산맥'은 빨치산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백석 시집'은 시인이 월북해서, '오작'은 부패한 정치세력을 비판했기 때문에, '조선책략' '금

사상을 가둘 감옥은 없다

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교리에 어긋난다며 사형까지 당했다.

진시황은 통치 체제 유지를 위해 '분서갱유'했고, 노자의 '도덕경'도 당대 지배이념에 비추어볼 때는 이단이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은 정조임금으로부터 문제를 바르게 쓰라는 어명을 받았다. 막스 베버는 우파임에도 '막스'라는 이름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유행했던 작가에 대한 검열이나 박해는 옛날의 사문난적(斯文亂賊)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인지 금서라는 단어에서는 괴 비매가 난다.

이 책은 금서를 문화투쟁의 관점에서 살폈다. 힘센 자의 밀어붙이기,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갈등과 투쟁을 금서를 통해 읽어냈다. 모두 8종의 금서를 제시

수회의록' '을지문덕' '8억인과의 대화'도 권력자의 눈 밖으로 내쳐졌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사상을 가둘 수는 없다. 책은 불태워 막을지라도 생각을 막을 수는 없다. 책의 사상을 결정짓는 것은 지배자의 뜻이 아니라 책 자체의 품격인 것이다. 인간의 DNA 안에 자유를 갈망하는 창작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한, 금서가 설 자리는 없다. 금서로 지정되기만 하면 훗날 필독서나 베스트셀러 같은 명제가 되는 걸 보면, 금서를 쓴 작가는 당대의 불온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꿰뚫어 보는 혜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다. 독재 권력에 야합했다 해서, 친일경력 때문에, 항락과 퇴폐를 조장했다고 해서, 우리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서로 묶을 수는 없다. 정조대를 채운다고,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으랴. 사상을 가둘 감옥은 없다.



정강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



'거지작가' 고(故) 최민식(1928~2013).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기에~.

그를 폄하 하는 작가들은 최민식을 “끝나버린 주제에 매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작가”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에는 그 누구보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여실히 담겨 있다.

18일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만난 최민식의 사진에는 인간의 맨 얼굴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그렇게 해맑은 표정을 지었고, 가족을 만났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았다. 그리고 지금은 남자가 된 소년은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무르고 있었다.

'소년시대(少年時代)'라는 주제로 전시된 150여점의 작품에는 전쟁과 가난, 정치적 변

혁기에 유년시절을 보낸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은 1950년대 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최민식이 부산 영도 골목, 부산역 등에서 '캔디드 기법'을 사용해 카메라에 담은 작품들이다. 그는 생전 “사진은 살아 있는 진실이다. 자꾸 꾸며대고 조작하면 안 된다”며 사람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하는 기법으로 필름에 담았다.

작품 배경은 부산이지만 그 안에 담긴 표정들은 우리의 모습이다. 하얀 이를 환하게 드러내고 웃고 있는 소년과 소녀, 한없이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부스스한 머리의 코흘리개, 까까머리 소년들은 별거벗은 채 사진을 찍어도 그저 해맑기만 했다.

“어린이들의 노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자. 억지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한결같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창조적 상상력을 배울 수 있다.”(최민식)

세 발 자전거와 솜바꼭질, 학교 앞 '빅보이 햄버거', 고무줄 놀이, 네모난 책가방 등 익숙하고 오래된,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아버지의 모습도, 어머니의 미소도, 할아버지의 파스한 등도 담겨 있다. 누나의 등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어린 시절을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을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촌스럽지만 마냥 행복했던 풍경들이다.

가난하고 남루한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꿈과 억척스러움이 작품 안에서 배어나기도 한다.

“어린이들 얼굴에서 나는 내 부모와 동생의 모습을 본다.”(최민식)

평생 서민들의 고단한 생활을 온기 어린 시선으로 담아낸 최민식, 화가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간 그는 헌책방에서 에드워드 스타이겐의 사진집을 보고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전시 작품들은 지난 2012년 롯데갤러리 본점에서 기획전이 열리기 전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다. 오는 30일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최민식의 사진세계를 통해서 본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길트기'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코흘리개·까까머리 소년... 촌스럽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전남문예재단, 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다채'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주간(11월 23~29일)을 맞아 목포 일원에서 성과발표회 및 문화강좌,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즐거움과 감동으로 공감하는 전남문화예술교육주간'을 주제로 23~24일 오후 1시부터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등 23개 운영단체가 모여 토요문화화

교 성과 발표회를 연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음악밴드 공연'(아트포), '학교 폭력 예방 창작 연극'(극단 새결), '창무극 땀과진'(우도농악 보존회) 등 13개 팀의 공연이 준비됐다.

26일 오후 7시에는 전남도립도서관 다목적 강당에서 테너 조용갑씨가 권투선수에서 성악을 하게 된 계기 등 인생 이야기를

전하고 음악이 함께하는 '조용갑의 이야기 콘서트'로 지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남문화예술교육 특성화 전략 실무협의회(25일 오후 3시 전남문예재단 문화마당), 예술강사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27일 오후 6시 전남여성플라자)이 열린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원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 월800만 대출 9억 5천), 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 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 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 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 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 전남권 매도·매수 상담, 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 칠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남로 5가에 있을 9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통영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나대지 목포시 용당동 MBC방송국 인근 대로면 상업지역 410㎡(124) 상가와 원룸 적합 대출 3억 2천 매도 2천
- 남평을 에서 차로 10분거리 마을 대지 162평 전원생활적합 대출 2천만원 매도 3백만원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지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일체에서 평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1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 자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1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 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 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